

[ TV ]

외판 산장에서 벌어진 한국형 코믹 호러물

일요영화 특선 '조용한 가족'(MBC·6일 새벽 0시40분)



소품이지만, 연기와 이야기가 연출이 멋지게 만나 1998년의 베스트영화 대열에 올랐다. 연극연출가 출신의 김지운 감독은 코미디와 연쇄살인극의 결합이라는 쉽지 않는 벽을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경쾌하게 돌파했다.



들은 그의 시신을 암매장한다. 얼마 안 있어 두번째로 남편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들도 사실은 동반자살의 장소로 이곳을 고른 것이다. 다음 날 발견된 남편의 시신에 경악한 가족들은 일을 조용히 마무리할 심산으로 시체를 몰래 매장한다.

TV 하이라이트

조수미와 함께한 강아지 신디



TV 동물농장 '조수미 편'(SBS·오전 9시 40분) = '신 이 내린 목소리'라 칭송받는 성악가 조수미. 그녀의 스케줄표는 올 해 말까지 벌써 꽉 찼어 있다. 그것도 매 번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의 공연. 한 달에 두 세 번씩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 다녀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마다 그녀와 동행하는 친구가 있으니, 6살된 강아지 신디다.

"엄마보다 여자로 살고 싶다"

주말연속극 '문화'(MBC·오후 7시55분) = 한나는 영철과 함께 문화가 소개해 준 정선 약수터 산막에서 요양을 한다. 한나는 문화에게 아이들의 엄마가 돼 달라고 했던 말을 생각해 봤냐고 묻는다. 문화는 자신은 처음부터 나쁜 여자였고 엄마보다는 여자로 살고 싶다고 말한다.

빌딩 문서 주며 설득시켜라

주말극장 '황금신부'(SBS·오후 8시45분) = 준우는 목각 인형에 진주의 얼굴을 새기는 등 진주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고, 진주 역시 '아버지를 평생 기다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며 준우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 옥경은 지영 모를 찾아가 빌딩 문서를 주

며 딸을 설득시키라고 이르는데, 이를 알게 된 영민은 어머니인 옥경에게 실랑, 분가하겠다고 선언한다.

'최후만' 등 5명의 코리안 파이터

K-1 WGP 흥국 대회-최후만 출전(XTM·오후 3시 30분) = 생중계로 전해지는 'K-1 월드 그랑프리 2007 흥국 대회'는 최후만 등 5명의 한국인 선수들이 출전해 흥국을 휩쓸 것으로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회다. 스승과 제자의 동반 출격, 최후만 vs 게리 라우치, 김태영 vs 섀도우, 태권도와 가라테의 하이킥 대결. 그리고, 불곰 김동욱, 슈퍼 에슬리트 랜디 건 전격 출전. 바다 하리 vs 피터 그라함의 초우호 매치가 펼쳐진다.



Advertisement for Kuebocheonggi (국제보청기) featuring a woman and a dog, with text about hearing aids and contact information.

TV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shows and their broadcast times.

케이블·위성TV 5월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